

‘고사 직전’ 제주건설, 제도개선·투자 절실 내년 80만 크루즈관광객 온다

건설협회 제주도회 상황 진단

공사비 급증 등 시장 냉각
도내 건설업체 폐업 ‘폭증’
지역경제 성장기여도 추락
지역 기업 특례안 마련해야



애기동백의 분홍빛 동백꽃 절경

크리스마스인 25일 나들이객들이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동백포레스트를 찾아 분홍빛 동백꽃으로 물든 애기동백나무의 장관을 감상하고 있다. 김법수 기자

제주 건설산업이 고사 직전인 것으로 진단되면서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25일 대한건설협회 제주도회에 따르면 최근 유례없는 건설공사비 급증, 금리 등 대외환경 악화에 따라 시장이 급속 냉각하면서 폐업이 증가하고 있다.

건설협회 제주도회가 집계한 결과 올해 종합건설업 폐업은 23건, 전문건설업 폐업은 63건으로 집계됐다. 2020년 대비 전문건설업은 53% 늘어난 수준이며, 종합건설업만 보면 47%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 지역건설산업은 GRDP 기준 약 6%를 차지하는 핵심산업이다. 취업자 역시 올해 상반기 기준 3만1000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7.8%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성장률은 마이너스 추세로 전국에서 가장 큰 위축을 기록하며 위기에 직면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제주 지역건설산업의 급격한 위

축세에 따라 지역경제 성장기여도 또한 급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제주지역건설업 지역경제 성장기여도는 2016년 33.5%에서 2022년 1.7%까지 추락했다.

제주 지역건설산업 규모는 2017년을 정점으로 지속 하락 추세에 있다.

특히 육지 업체가 진출할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도서지역 특성상 대형공사가 실종되고 있다는 것이 발목을 잡고 있다.

제주도회는 “도농복합지역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전국 평균 이하의 낮은 인프라가 문제”라며 “제주건

설업의 경우 전국 유일 역성장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도내 건설업체는 지역건설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절대 물량 확보 필요성을 제언했다.

특히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조속 추진과 제주도법 건설분야 지역기업 우대기준 특례 마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SOC 예산 확대, 대형공사 분할발주 활성화 및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 적정 공기·공사비 확보를 통한 품질·안전 제고, 도로·상하수도공사 등 발주 방식 전환 등을 주문했다.

건설협회 제주도회 관계자는 “제

주도에서 발주되는 공공기관 사업에 대해 지역기업 우대 기준 특례를 마련해야 한다”며 “타시도와 공동추진으로 법률의 당위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이 열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 건설산업이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공공공사 물량의 대폭 감소로 총체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SOC 인프라 투자예산이 지속 확대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주민복지향상 등을 동시에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승민 기자

도, 내년 344항차 선석 배정
19% 증가 시장 다변화 덕분
내년 세계적 선사들 첫 기항

내년 제주를 찾는 국제 크루즈 관광객이 80만여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11월 30일 기준 국제 크루즈 입항은 260회를 기록했으며, 방문객 수는 총 62만3000여명에 달했다. 도는 연말까지 약 2만명의 관광객이 추가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내년에는 올해 대비 약 19% 증가한 총 344항차의 선석이 배정됨에 따라 제주를 찾는 크루즈 관광객이 약 80만명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제주도의 시장 다변화 노력으로 중국 외 아시아 및 글로벌 크루즈 입항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중국 외 지역에서 출발하는 크루즈선이 지난해 15척에 그쳤던 반면

올해는 21척으로 증가했으며, 내년에는 29척이 99회에 걸쳐 제주를 방문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에 노르웨지안(Norwegian), 카니발(Carnival), 실버시(Silversea), 로얄캐리비안(Royal Caribbean) 등 세계적인 크루즈 선사의 크루즈선들이 처음으로 제주를 기항지로 선택했다.

도는 크루즈 관광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 크루즈 선석 배정 시 제주산 선용품 및 청수 공급, 지역 상권 방문, 준모항 육성 등을 고려하고 있다.

아울러 원도심 관광 안내지도 배포, 지역 상권 연계 소비 이벤트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증가하는 개별 관광객을 위한 맞춤형 정책도 강화할 예정이다.

정재철 도 해양수산국장은 “크루즈 관광객들의 제주 체류 시간을 늘리고 만족도를 높여 지역 상권과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민재 기자

올해 조천·한경 꽃자왈 숲 14ha 매입

도, 공익 차원 45억여원 투입
산림연구소 시험림 지정 예정

제주도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국유림 확대를 위해 올해 45억여원을 투입해 한경면 저지리 일대 꽃자왈 13ha·조천읍 선흘리 일대 꽃자왈 0.9ha를 매입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해당 지역은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의 시험림으로 지정·관리될 예정이다.

올해 산림청 지원을 통한 꽃자왈 사유림 매수사업은 생태등급 1-2등급 및 집단화가 가능한 임지를 중심으로 조천(선흘)과 한경 지역을 우선 추진했다.

매수 가격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국유림의 확대 및 매수)에 따라 소유자와 사전 협의하고 감정평가업자 2인의 평가액 평균으로 책정했다.

강애숙 도 기후환경국장은 “제주 고유의 산림생태계인 꽃자왈의 체계적 보전을 위해 산림청 국비 확보 등을 통한 사유 꽃자왈 매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09년부터 시작해 올해까지 꽃자왈 매수사업에 607억

원을 투입했으며, 총 536ha를 매입했다. 산림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오는 2028년까지 200억원을 추가 투입해 200ha를 매입할 계획이다. 송민재 기자

올해 근해어선 5척 자율감척 완료

감척보상금 등 103억 지급

제주도는 올해 근해어선 자율감척사업을 통해 2개 업종의 5척(제남기 1척·자망 4척)을 폐선 완료, 감척보상금과 생활안정지원금 총 103억원을 지급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1월부터 신청 접

수를 받아 법령준수정도, 어선의 규모, 조업 일수 및 선령 등의 기준에 따라 평가 후 고득점자 순으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했다.

감척대상 어선은 어업허가 폐업 및 선체 인수·인계 절차를 걸쳐 해체처리 업체를 통해 폐선처리됐다. 이에 폐업지원금과 매입지원금

(선체잔존가치액)을 합산한 감척보상금 약 99억원이 어선 소유자에게 지급됐다.

감척대상 어선 선원 20명에 대해서도 승선 기간에 따라 1인당 최대 6개월분 월급을 어선원생활안정지원금으로 지급했다. 이번 감척으로 총 103억원이 지급됐다.

도는 기후변화 및 수산자원 감소 변화 등의 여건을 반영해 내년에는 올해 대비 37% 증액된 1867억원을

편성해 사업규모와 대상 업종을 확대할 계획이다. 2025년 근해어선 감척사업 신청은 사업 시행계획이 확정되는대로 내년 1월 중 희망자 모집 공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정재철 해양수산국장은 “최근 수산 자원 감소 및 경영비 상승 등으로 어업 현상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감척사업을 지속해 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민재 기자

생활안전 실천, 안전제주 실현 6면 / 김유정의 제주도 12면

경 제주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의 무한한 발전과 영광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축

(2024년 제주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우수성과 수상)

<p>2024년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2024년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최우수상</p> <p>김공률 농업회사법인(주) 시트러스</p>	<p>2024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 수상 기타주류부문 우수상</p> <p>유현 영농조합법인 우도향곡막걸리농업회사법인(주)</p>	<p>2024년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식량작물(매일)분야)</p> <p>문성욱 농업회사법인 오라유한회사</p>	<p>2024 농업인의날 정부포상식 국무총리상</p> <p>문승환 농업회사법인 오라유한회사</p>	<p>2024년 제주향토음식 장인 지정(제주 전통 장류 분야)</p> <p>부정선 제주돌마루원장고 영농조합법인</p>	<p>제59회 발명의날 기념 유공자 시상식 중소기업부장관 표창</p> <p>강유안 (주)대한부티산업진흥원</p>	<p>수출인의날 수출장려상</p> <p>차수민 우림피니(주)</p>	<p>제주시장 표창패</p> <p>양임순 제주성다임로에 영농조합법인</p>	<p>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교육기부 감사패</p> <p>강명실 풀개업동조합</p>	<p>차세대농업인상 표창장</p> <p>강성욱 제주광림메타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p>	<p>보전복지부 인정 4년 연속 지역사회공헌인정 지정</p> <p>양혜숙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이치미소</p>
<p>2024년 제주경제대상 종합대상 JDC 이사장 표창</p> <p>강춘일 농업회사법인(주) 제주인디</p>	<p>2024년 제주경제대상 부문상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표창</p> <p>김정욱 농업회사법인(주) 제주우유</p>	<p>2024년 제29회 제주농업인의날 우수농업인상</p> <p>강경호 내가먹은김밥</p>	<p>2024년 제29회 제주농업인의날 제주특별자치도농업인상 유통기공부문</p> <p>최동우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코샷</p>	<p>2024년 제29회 제주농업인의날 제주특별자치도농업인상 친환경농업부문</p> <p>이성호 생드르영농조합법인</p>	<p>2024 제18회 하반기 대한민국 우수특허 대상(식품분야) 농업중앙회 제주본부 표창</p> <p>정명주 담은제주농업회사법인(주)</p>	<p>2024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감사패</p> <p>이정아 농업회사법인 기뻐를 주식회사</p>	<p>농촌진흥청장 표창</p> <p>이형철 한상술로차활농원</p>	<p>2024년 농촌융복합산업 원장공헌 우수전문위원 감사패</p> <p>최진실 제주라이프</p>	<p>제주특별자치도지사 표창</p> <p>강승진 사단법인 제주농업농촌진흥원 이사장 사단법인 제주농업농촌진흥원 센터장</p>	<p>농촌활력증진기여 대통령표창</p> <p>안순화 제주농업농촌진흥원 센터장</p>

(사)제주농업농촌진흥원 제주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 기재순서는 수여처별 수상일자 기준입니다.